

- ① 본문에서 인용하고 있는 부분에 대한 출처를 밝히고 있지 않음. 각주를 활용하여 출처를 분명하게 밝힐 것. 교재5장을 참고할 것.
- ② ppt 발표 논평에서도 말했듯이, 필자의 주장은 매우 강한 측면이 있음. 즉, 개인의 행복 추구권을 제한하는 측면이 있음. 이것을 어떻게 반론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가 요구됨. 달리 말하면, 인구 억제를 통해 환경 문제가 심각해지는 것을 차단하겠다는 공공의 목적에 대한 선의와 개인의 행복 추구권의 충돌을 어떻게 해소할 것인가?
- ③ 더구나 필자의 주장을 수용할 수 있더라도, 이 정책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지구적으로 시행되거나 적용될 경우에만 그 실효성을 기대할 수 있음. 합의가 될 수 있을까?
- ④ 인구 증가가 가파르게 증가하는 지역은 선진국이 아닌 아프리카를 비롯한 저개발국이라는 문제에는 어떻게 대응할 수 있을까?
- ⑤ 환경 오염을 더 많이 발생시키는 것은 소위 선진국이라고 불리는 나라들이지. 논의 자체를 환경오염 유발의 총량이 아니라, 인간의 수 때문에 초래되는 오염의 양으로만 논의를 한정하고, 저개발국가들의 너무 가파른 인구 증가 때문에 경제적, 환경적 문제를 겪고 있다고 할 경우, 어떻게 그들 나라의 적절한 수준의 인구 조절(?)을 이룰 것인가?
- ⑥ 저개발 국가들의 경우에, 원치 않는 임신으로 인한 출산이 비교적 많다.

환경오염의 근원

산아제한정책은 왜 시행되어야 하는가?

202111668 김은서

서론

적정인구를 초과한 과잉인구가 환경문제 발생의 중요 원인이라는 것을 알고 있는가? 대부분 사람은 적정인구라는 단어가 낯설게 느껴질 것이다. 지구의 적정인구란 인간이 지구의 자원을 사용할 때, 지구가 감당할 수 있는 인구수를 말한다. 이에 관한 논의는 몇 년 전부터 이루어졌다. 『인류세:인간의 시대』에 따르면 생태용량은 생태계의 자원 재생산 능력을 나타내는 개념이다. 물, 공기, 토양 등 생태계의 자원 생산 능력과 오염·폐기물 흡수 능력을 계산해 수치화한다. …지구생태발자국네트워크에 따르면 이미 지구는 생태용량을 초과해버린 생태계 적자 상태이다.¹⁾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 출산 장려 정책을 시행하는 것이 아닌 산아제한정책을 도입하여 더 이상의 폭발적으로 인구가 증가하는 것을 막는 것이다. 그래야지만 가속되는 환경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다. 이로 인해 생기는 경제 성장 동력 감소로 인해 생기는 경제 침체에 관한 문제는 정년퇴임의 나이를 연장하는 것으로 해결할 수 있으며 정년퇴임의 기간을 연장함으로써 고령화 문제와 노년 부양비 문제 또한 해결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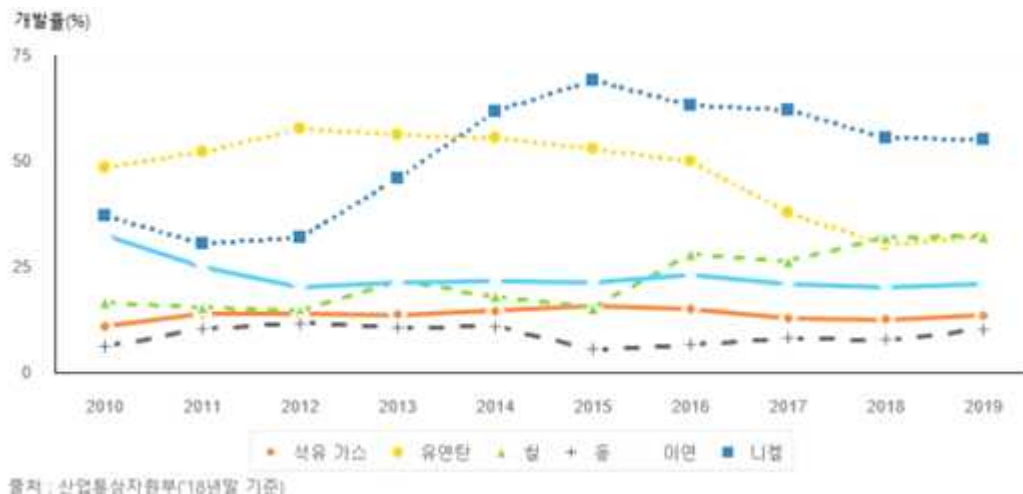
1) 최평순, 다큐프라임<인류세> 제작팀, 「인류세: 인간의 시대」, 해나무, 2020, p.302.

본론

1. 환경오염의 발생은

오늘날의 우리가 사는 사회는 환경오염으로 인해 골머리를 앓고 있다. 그렇다면 환경오염의 발생 원인이 무엇이고 언제 발생하였는지 묻는다면 당신은 어떻게 대답할 것인가? 이에 대한 답변은 하나일 것이다. 인간이 과도한 자원 개발을 시작한 산업혁명 이후부터 발생하였다고 말할 것이다. 이 말은 즉, 인간이 환경오염의 주범이라는 뜻이다.

<표1> 해외 자원 개발 현황



위의 <표1>은 자원 개발에 대해 보여주는 그래프이다. 기술이 발전하고 인구가 증가할수록 대부분의 자원 개발률이 높아지는 것을 볼 수 있다. 유연탄의 개발이 줄어드는 것은 대체 자원을 발전시켰기 때문이다. 이처럼 인간은 이 세상에 태어난 후 살아가는 데 필요한 의식주 자원을 전적으로 자연에 의존하고 있다.²⁾ 이와 같은 사실에 부정할 수 있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필요에 따라 자원을 개발하고 발전시켜 다양한 곳에 적용하고 살아가며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것은 인구가 늘어갈수록 자원 개발은 더욱 빨라지고 개발되는 양은 증가한다는 것이다.

과거 사람들의 풍요롭고 편리한 의식주를 위한 재화와 용역의 생산, 유통, 소비 과정에서 배출되는 폐기물은 다시 자연으로 되돌아가 흡수되었고 그 순환이 반복되었다. 하지만 오늘날의 인구수는 자연이 감당할 수 있는 자원 공급과 폐기물 흡수처리 용량을 넘어섰다.³⁾ 자연이 감당할 수 없는 과도한 자원 개발과 사용, 그에 따른 폐기물은 환경오염을 더욱 악화시켰다. 이로 인한 문제는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다. 환경오염의 세계화로 불리는 현상 즉, 특정 국가에서 발생한 환경오염 문제는 더는 특정 국가만의 문제가 아니라 국경을 초월하여 영향을 준다.⁴⁾

2) 정대연, 「환경 측면에서 한국의 적정인구 추계」, 한국인구학회, 2006, p.270.

3) 정대연, 2006, p.272.

4) 정대연, 2006, p.271

1-1. 재활용의 불편한 진실

우리는 사용한 자원들을 재활용하고 있다. 하지만 사람들은 재활용이 환경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사실은 알지 못할 것이다. 인류세의 책에 따르면 사람들은 대부분 재활용은 잘 분류해서 버리면 끝난다고 생각하는데 이건 수집의 과정일 뿐이며 재활용의 길고 복잡한 과정 중 하나일 뿐이라고 한다.⁵⁾ 이처럼 환경오염을 막고자 친환경 제품을 사용하고, 매장 내에서 일회용 잔을 금지하며 플라스틱을 끊임없이 생산하고 쓰는 것은 환경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결과적으로 산업혁명 이후부터 사람들의 과도한 자원 개발로 인해 자연이 훼손되기 시작했으며, 환경오염을 발생하였다는 것이다. 자연 자원의 추출은 자연고갈의 결과를 가져올 뿐만 아니라 추출과정에서 자연이 오염되고 파괴된다는 것이다.⁶⁾ 이로써 인구의 증가는 환경문제의 발생 원인이라고 할 수 있다.

2. 증가하는 인구수

과거부터 현재까지 도시는 계속해서 커지고 있다. 1930년대에는 인구수가 50만 명을 넘었으며,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가속화 시기와 맞물리며 1970년대에는 인구가 450명으로 늘었다.⁷⁾ 도시를 건설할 때 계산한 적정 인구를 넘어서는 도시들은 늘어만 갔다.

우리가 사는 지구에는 한 해에 약 1억 4000만 명 정도의 인구가 태어난다고 한다. 오늘날의 77억 명의 인구는 2050년경에는 100억 명을 돌파할 것으로 예상된다.⁸⁾ 100억 명의 인구가 소비하는 자원과 편리를 위해 발전시키는 것들은 자연의 모든 부분을 파괴하고 환경을 더욱 오염시켜 그로 인한 문제는 커질 것이다.

2-1. 돌아오는 피해

환경오염으로 인해 나타난 문제 중 일부는 우리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끼쳤던 미세먼지, 초미세먼지와 산성비, 미세플라스틱, 지구온난화, 녹조현상과 같은 문제들이 있다. 미세먼지와 초미세먼지는 질산염, 황산염 등 화학물질이 포함되어 있고 코와 기관지에 걸러지지 않고 그대로 몸에 축적되어 인체에 부정적인 영향을 준다. 산성비는 산업시설과 자동차의 매연, 천연가스가 원인이며, 토양을 산성화시키고 물을 오염시키는 등 여러 문제를 유발한다. 미세플라스틱은 우리가 사용하는 모든 플라스틱에서 나오며 눈에 보이지 않는 크기로 부서진 플라스틱은 다른 생명체들이 먹이로 섭취하고 그 생명체는 식탁 위에 등장한다. 이로써 우리는 우리가 버린 플라스틱을 스스로 먹

5) 최평순, 2020, p.155.

6) 정대연, 2006, p.272.

7) 최평순, 2020, p.217.

8) 최평순, 2020, p.306.

는 것이다. 이러한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으며, 언급된 문제는 환경오염 일부분일 뿐이다.

이 모든 문제는 결국 인간에게 되돌아오며 인간은 스스로 위험에 노출 시키는 셈이다. 인구가 증가할수록 도시는 커지고 도로는 확장되고 높은 건물은 더 많이 들어서며 자연은 서서히 사라지며 이로 인해 환경파괴와 자원 부족 문제, 양극화 등의 문제는 더 많이 발생하고 더욱 심각해질 것이다.

1. 산아제한정책의 도입이 필요한 이유

증가하는 인구로 인해 환경문제가 심각해지고 있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가운데 우리나라를 포함한 몇몇 국가는 과거보다 인구 증가가 더더지고 있다는 것을 앞세우며 저출산이라고 칭하고 있다. 정부는 출산을 장려하기 위해 출산을 지원금 지급하는 등 여러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이러한 정책은 저출산 문제를 조금이나마 해결하여 경제적으로 국가를 성장시킬 수 있겠지만 결과적으로 보았을 때 인구 증가로 인해 발생한 문제들을 악순환은 반복하게 될 것이다. 우리는 지구가 수용할 수 있는 적정 인구수를 한참 초과했으며, 이로써 과잉인구가 환경문제 발생의 중요한 문제라고 할 수 있다.

현재 우리가 해야 할 것은 인구를 증가시키는 것이 아닌, 인간으로 인해 발생하고 심각해진 환경문제를 해결하는 것이다. 과잉인구로 인해 환경문제가 심각해진 상황에서 출산을 장려하고 인구 증가를 도모하기보다는 산아제한정책을 도입하여 이러한 문제를 해결해 나가야 한다. 사람들은 이렇게 말할 것이다. '저출산으로 인해 국가가 침체할 텐데 이런 상황에서 산아제한정책을 도입하자고?' 여기서 우리는 더 나아가 산아제한정책으로 인해 생길 경제적인 문제점을 해결할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경제적 동력을 유지하면서 경제를 성장시킬 방안을 말이다.

3-1. 노동력 확보를 위한 정책의 모순

<표2> 2000~2019년 기대수명 그래프

위의 <표2>의 생명표 그래프를 보지 않아도 현재 우리는 과거의 수명보다 기대수명이 더욱 길어졌다는 사실에 대해 알고 있을 것이다. 시간이 지나며 기술이 발전함에 따라 의료기술 또한 발전했으며, 질병에 관해서 수많은 연구가 이루어짐에 따라 예방 가능한 질병들이 생기기 시작했다. 의료기술이 발전함에 따라 인간의 기대수명은 점점 증가하였다. 수명이 증가한다는 것은 나이와는 달리 신체는 건강하지 유지된다는 것이다. 하지만 기대수명이 늘어난 것과는 달리 국가가 일할 수 있는 나이를 정해둔 정년퇴직과 관련된 법 조항은 여전히 제자리걸음인 것을 알 수 있다. 정년퇴직의 의미를 겉으로 보면 젊은 층의 일자리를 마련하기 위한 것이지만, 속의 뜻은 젊은 층과

2000~2019년 기대수명

단위: 세



출처 통계청, 「생명표」

는 달리 나이가 들었으니 능률이 떨어지므로 정년퇴직이라는 이름으로 해고하는 것이다. 이처럼 기대수명이 늘어 남에 따라 정년퇴직의 나이를 연장하여 노동력을 확보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출산을 장려한다는 것은 정부 정책의 모순이라고 할 수 있다.

3-2. 산아제한정책의 문제 해결 방안

산아제한정책을 시행함으로써 생기는 문제점은 정년퇴직의 나이를 연장하는 것으로 해결할 수 있다. 이러한 방법을 통해 노동력을 확보할 수 있으며, 고령화로 인해 경제적 노년 부양비가 증가한 문제 또한 해결하며 경제 동력을 유지하고 국가를 성장시킬 수 있는 최적의 방안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다.

6. 반론과 재발론

산아제한정책을 시행해야 한다는 이 글을 읽은 당신은 이 정책은 인간의 권리를 침해한다고 말할 것이다. 여기서 말하는 산아제한정책은 극단적이고 강압적으로 시행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 이 전제가 우선으로 깔려있어야 하며, 각 국가에 맞게 적정선의 성장과 경제를 유지할 수 있는 선에서 시행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제한한 아이 수를 넘기게 되면 법적인 처벌을 물고 강력한 대응을 하는 것이 아니라 국가에 일정 금액을 상납하거나 국가에 이바지하는 방안을 찾아 그것에 맞게 대처하는 것이다. 이것은 예시일 뿐이며 그에 따른 방안은 전 세계적으로 또는, 그 국가에 맞게 조율해 나가야 한다.

결론

우리는 산업혁명 이후에 과도한 자원 개발을 하여 자원을 훼손시켰으며, 그로 인해 환경오염이 발생하였다. 적정 인구를 초과하여 환경문제로 골머리를 앓고 있는데 출산 장려하는 것은 더 큰 문제를 불러올 수 있다. 당장은 경제가 발전하고 성장하는 발판이 되겠지만 미래적인 측면으로 보았을 때 지구는 견잡을 수 없이 파괴되어

되돌릴 수 없게 될 것이다. 또한, 출산 장려 정책을 실행하는 것은 환경에 끼친 영향은 모두 돌아온다는 사실을 망각하는 것이다.

이 정책을 시행한다고 해서 당장 이전의 지구로 되돌아가지 않는다는 것은 당신도 알고 있을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정책을 시행하지 않고 인구의 폭발적인 증가를 막지 못한다면 더 이상의 미래는 그 누구에게도 오지 않을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산아제한정책을 시행하며 자연에서 얻는 자원을 대체 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야 한다. 또한, 국가마다 추출하는 자원의 양을 제한하는 등의 국가적 협약을 만들어 지키기 위한 노력이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 정책과 더불어 이러한 노력을 한다면 이전의 지구 모습으로 돌아갈 수는 없어도 더는 지구가 망가지는 것은 막을 수 있을 것이다. 더 나아가 오랜 시간 지속하면 지구는 점차 회복될 것이다.

<참고문헌>은 어디에?